

청교도와 한국 장로교회의 성찬 실행 횟수에 대한 신학적 고찰*

정승원 (충신대학교/현대신학)



성찬(Lord's Supper)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예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한국장로교회 성찬 예식의 현실을 보자면 예수님의 뜻과 반하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난다. 성찬은 형식적인 예식이 되었고 그 원래적 의미가 퇴색되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means)이며 언약백성들에게 공급하는 은혜의 인치심(seal)과 표징(sign)이다. 성찬 자체가 죄 씻음의 마력을 가졌거나 성찬 자체가 초자연적 은혜를 지닌 것이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시하는(signifying) 방편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깊이 다루며 성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성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 계속 공급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예배 때에 항상 함께 실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 성공회의 예배를 개혁하고자 하는 청교도와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을 전수한 한국장로교회는 비록 칼빈의 전반적인 신학을 따르면서도 성찬을 자주 실행하지 못했다. 각자 이유의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크게 설교 중심의 예배 강조와 수찬을 위한 철저한 윤리적 기준 때문이라고 본 논문은 피력한다. 예배에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찬 역시 설교와 동등한 은혜의 방편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수찬을 위한 윤리적 기준은 오히려 칼빈주의 성화와 어긋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국장로교회의 예배 중심이 너무 지나치게 목사 개인의 설교에 치중되어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길이 칼빈이 강조하는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자주 실행하는 것이다.

주제어: 성찬, 청교도, 형식주의, 언약, 윤리적 기준, 은혜의 방편

1. 서 론

대한민국이 약 130년 전 처음 선교의 문을 열었을 때 복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이 가진 신학, 전통, 관습, 양식, 사교방식 등도 들어왔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국 토양과 이질적인 것도 있고 서구 토양이나 한국 토양 모두를 초월하는 요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도 함께 들어 있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절대화시킬 필요가 없는 요소들도 많았을 것이다. 물론 성경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요소들도 제법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 온 것 중 신학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무조건 성경적이며 복음적이라 볼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요소들을 지향하고 전수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처음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했을 것이다. 예배의 방식과 내용과 시간과 행하는 자세 등 거의 모든 것을 선교사들로부터 전수 받았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소개한 것은 자신들이 속했던 교단이나 답습한 전통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66 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은 번역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과 성경에 대한 입장은 선교사들 간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예배와 같은 의식이나 기독교적 문화에 관해서는 선교사들이 각기 자기 교단이나 고국 교회에서 답습한 모습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소개한 예배 의식, 특별히 성찬예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시 처했던 서구 전통과 신학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수많은 선교사들의 신앙적 배경을 역사적으로다 살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처했던 서구 교회(주로 미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학적 입장과 그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서구교회에서의 성찬은 단순한 예전적(sacramental) 차원에서만 이해할 대상이 아니었다. 신학적, 사회적, 정치적, 교회적 차원에서 고려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청교도들의 성찬 역시 이런 배경들을 다 담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 처음 소개된 예배나 성찬 예식은 어떤 확실한 배경이나 깊은 신학적 의미도 담지 못하고 단지 중요성과 필요성만을 지닌 채 한국교회에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배에 있어서 성찬식은 말씀 선포와 함께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잘 정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복음을 전한 초창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이라 볼 수 있는 청교도들의 성찬 신학을 살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특별히 성찬 횟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한 다음 한국장로교회의 성경적 예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던지고자 한다.

2. 칼빈과 청교도 성찬 신학 비교

비록 청교도들은 신학과 신앙적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칼빈주의 노선을 따랐지만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일정하지 않았다. 모든 청교도들이 성찬에 있어서 칼빈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성찬 실행에 있어서는 칼빈의 가르침과 사뭇 달랐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4권 14장과 17장에서 성찬에 대해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피력하고 있고, 이어서 제

18-19장에 로마천주교의 예식에 관해 자세히 비판하고 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다음, 우리를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들로써 대하시면서, 지극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지탱시키신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맹세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손을 통하여 그의 교회에게 또 하나의 성례를 주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사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먹고 참되고 복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친히 확증하시는 하나의 신령한 잔치인 것이다(요 6:51).¹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칼빈이 해석하는 성찬의 목적이다. 성찬의 목적은 그 예식 자체에 있지 않다. 심지어 떡과 잔 자체에 담겨져 있지 않다.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언약에 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의 여생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지탱과 풍성함과 확신을 약속하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평생 사는 동안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의 신앙적 상태는 계속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것을 알리신다(요16:13-14).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증거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오신 것이다. 성화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앙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 평생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확신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십자가(나무)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떡과 포도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효력이

¹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 17. 1.

있는 것이다. 주께서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전11:24-25). 로마 천주교는 떡과 잔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동일시했고(transubstantiation), 마틴 루터는 떡과 잔 자체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consubstantiation).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마치 십자가 나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자기 몸에 달고 그것에 입을 맞추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충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며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의 구원을 지탱하고 풍요롭게 하고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찬을 성화 차원에서 이해한 칼빈은 성찬을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듯 일 년에 한 번씩 고난(Pascha) 주간에 거행하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성찬은 일 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통례가 그런 것처럼 형식적으로 시행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오히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고 강건케 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하여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 속에서 그 연합의 끈인 사랑을 분별하도록 하신 것이다.²

² 칼빈, 『기독교 강요』, 4. 17. 44.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한다고 해서 칼빈의 주장을 썩빙 글리의 기념설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지 성찬 예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4. 17. 13-33에서 칼빈은 화체설, 공체설, 기념설 등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반박하고 있다. 결론으로 신자는 성찬을 통하여 영적이면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주장은 뒷부분에서 청교도의 성찬 신학을 언급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심지어 칼빈은 “일 년에 한 차례씩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는 관례는 누가 거기에 개재되었든지 간에 참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³ 칼빈은 또한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횡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마26:27).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히 이 명령을 그와 반대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시켜서, 모두가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을 제정한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부당하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 신성한 잔을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베풀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지혜로도 그런 위험들을 미리 예견하고 고려하지 못하신 것처럼 말이다!⁴

칼빈이 지적하는 것은 인위적 수찬자의 제한이다. 인간이 수찬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신성한 잔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인간적 목적을 위해 수찬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성찬을 회개의 방편으로 생각하여 누구나 나와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수찬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믿음과 사랑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합당함이란 첫째로, 믿음에 즉,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데에 있으며, 둘째로 사랑에 즉, 완전한 상태에서 드릴 수는 없으니 당연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낮게 만드시도록 그에게 드리기에 충분한 그런 사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⁵ 이렇듯이 칼빈은 성찬 자체에 어떤 능력이

³ 칼빈, 『기독교 강요』, 4. 17. 46.

⁴ 칼빈, 『기독교 강요』, 4. 17. 47.

⁵ 칼빈, 『기독교 강요』, 4. 17. 42. 칼빈은 “사람으로서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을 표준으로 요구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과 동등한 그런 사랑을 표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 만일 그들의 견해를 취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성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설명한다. 그러나 많은 청교도들 가운데는 좀 더 분명한 윤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칼빈은 말씀과 성례를 분리해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중요성을 깎아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러므로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기능-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우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보화들을 제시하고 세우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정된 하나의 원리로 간주하도록 하자”라고 말한다.⁶

한편 청교도들은 칼빈의 전반적인 신학을 따르면서도 실제적인 성찬 예식에 있어서는 칼빈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⁷ 홀리필드는 지적하기를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떡과 잔에 들어있는 요소들의 특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⁸ 홀리필드의 이러한 지적은 신학적으로 청교도들과 칼빈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대표적 청교도들의 성찬 신학을 보면 칼빈의 성찬 신학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존 오웬(John Owen)은 다음과 같이 성찬에 대해 주장한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성찬을 거행할 때에 감각[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일이지만 이 감각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⁹ 그는 또 주장하기를 “주의

리적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성찬을 받고 싶어도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영적 상태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낌으로 성찬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성례는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다”라고 말한다(4. 14. 17).

6 칼빈, 『기독교 강요』, 4. 14. 17.

7 개혁주의 입장의 성찬에 관한 신학은 칼빈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의 신조와 고백서에서도 나타는 신학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First Helvetic Confession, 20, 23; Gallican Confession, 36-37; Old Scots Confession 21; Belgic Confession, 33, 35; Second Helvetic Confession 21; Heidelberg Catechism, 75, 76, 79; Westminster Confession 29.7;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68, 170. 특히 많은 청교도가 참여 했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성찬에 있어서 칼빈의 입장과 거의 같다고 하겠다.

8 E. Brook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The Development of Puritan Sacramental Theology in Old and New England, 1570-17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4), 27.

9 John Owen, *The Work of John Owen*, ed. by William H. Goold, vol. ix. (Philadelphia: Leighton Publications, 1865), 593.

만찬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그리스도와의 특별하고 독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¹⁰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은 다음과 같이 설교와 성찬을 비교한다. “설교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 설교에서 당신의 몫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찬은 확실하다. 설교들 가운데 어떤 것은 위로, 어떤 것은 지식 전달, 어떤 것은 감정을 북돋운다. 그러나 이 성찬에서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빛과 지혜와 위로와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¹¹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말씀은 우리 귀에 나타나는 표지라고 하면 성례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표지이다”라는 말을 했다.¹²

이렇듯이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칼빈이 강조하는 성찬의 중요성을 수용했다. 그러나 칼빈이 처한 상황과 청교도가 처한 상황이 달랐다. 칼빈의 대적은 로마 천주교였다고 하면 청교도의 대적은 영국 성공회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의 눈에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에, 특히 성례 신학에 로마 천주교의 잔재들이 분명하게 보였다. 청교도는 그들의 신학적 틀과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좀 더 철저한 개혁을 성례에서도 요구했다. 고교회(high church)인 영국성공회의 모든 예식들은 청교도에게는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이고 인위적인 요소들로 꽉 차있는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쳐졌다. 이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보다 신학에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고 싶었다. 호튼 데이비스에 따르면 청교도의 주된 관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인간의 원죄였다고 말한다.¹³ 청교도가 성찬을 이

¹⁰ Owen, *The Work of John Owen*, 525.

¹¹ Thomas Goodwin, *The Work of Thomas Goodwin*, vol. xi: *The Constitution, Right Order, and Government of the Churches of Christ* (Edinburgh: James Nichol, 1865) 408.

¹² William Perkins, “Reformed Catholike,”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1:610, quoted in John von Rohr,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76-77.

¹³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Westminster: Dacre Press, 1948), 7.

해하는 기준도 성경과 인간의 원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은 성찬 예식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성찬 예식이 죄 속량의 수단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성경과 인간의 죄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찬의 위치가 불안해 질 수 있다. 비록 청교도와 칼빈의 성례신학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실제적 거행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취하게 하였고 이런 실제적 거행에 있어서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성찬의 중요성을 깎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칼빈보다 더 철저한 반-형식주의(anti-formalism)와 반-미신(anti-superstition)적 자세, 그리고 성경 아닌 그 어떤 인위적인 것도 배제하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성경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 것이 청교도 성례 신학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왜 청교도들은 칼빈이 강조한 것과 같이 자주 성찬을 행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청교도들의 예배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었다. 청교도들에게 영국 성공회의 예배 의식은 매우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으로 비쳐졌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단순한 예배를 추구했다. 그들도 새로운 세계에 처음 정착할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하고는 했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했고 나중에는 일 년에 4번 정도를 행하게 되었다.¹⁴ 그러면 똑같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성찬을 이해하고 거행하는데 왜 칼빈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주 성찬을 거행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성찬 거행 횟수에 대한 신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¹⁴ Donald W. Howard, Jr. *Renewal Worship: Caring for People*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102. 여기서 도날드 하워드는 성찬식을 일 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은 썬빙글리의 영향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교도의 성찬 거행 횟수에 대한 신학적 고찰

칼빈은 가능한 한 자주 성찬을 해야 함을 강조했고 ‘말씀 예배’(The Liturgy of the Word)와 ‘성찬’(The Liturgy of the Upper Room)을 분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일 예배에는 말씀 예배와 성찬이 함께 거행하도록 했다. 반면에 쾰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성찬을 분리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이미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에 있었다.¹⁵ 한편 칼빈은 모든 주일 예배에 성찬을 거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제네바 시의회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결과는 불행하게도 1538년 칼빈은 시의회에 의해 내쫓기고 스트라스버그로 이주했으며 다시 제네바로 돌아 왔을 때는 시의회와 “현재로는”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일 년에 네 번 이상 거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¹⁶ 칼빈 당시에도 이미 성찬 거행 횟수에 대한 의견들이 일치 하지 않았다. 한편 요한 낙스(John Knox)의 지도하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성찬 거행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찬을 가능한 한 자주 하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공예배 모범”(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이 완성되었고 1645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영국 장로교회를 제외하고 영국 교회에서는 얼마 사용되지 않았다.¹⁷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각기 다른 신학적 입장에서 혹은 다른 상황에서 성찬을 거행했다. 홀리필드에 따르면 초창기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성만찬 주장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취하

¹⁵ William D.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Its Developments and Form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117.

¹⁶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117.

¹⁷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129. 장로교인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독립파(Independents)들은 설교 전에 기도를 자유롭게 그리고 길게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자유로운 기도에 반대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독립파(혹은 회중교회)에 속한 청교도들은 더욱 형식적인 기도예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였다고 한다. 특히 칼빈의 주장과 쾰빙글리의 주장을 섞어서 취하였다고 한다.¹⁸ 신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칼빈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또한 이미 17세기 유럽에서는 합리주의(Rationalism)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Enlightenment) 영향으로 자유주의 팽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도 청교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청교도들, 즉 철저한 성경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성찬을 자주 갖지 못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인한 것이요, 둘째로 성찬을 받을 자격을 위한 철저한 윤리적 기준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교도들은 가능한 한 성경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따르려고 했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거부했다.²⁰ 성경을 예배의 궁극적인 기준과 핵심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될 것이다. 또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는 그만큼 설교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성찬식을 자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금하겠다는 의지만 아니라 인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홀리필드는 청교도 개혁자들은 성찬에 대한 어떤 신비적 미신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을 더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²¹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 성만찬에 사용되는 사제복, 성호를 긋는 것, 무릎을 꿇는 것, 밀떡(wafer), 등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²

¹⁸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27.

¹⁹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31-32, 129-31 참조.

²⁰ 호튼 데이비스는 청교도들의 예배의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Horton Davies, "The Word of God as the supreme liturgical criterion," 49-56 참조.

²¹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37.

화이트에 따르면 분리주의자들(the Separatists)과 청교도들은 ‘과도한 칼빈주의(hyper-Calvinism) 전통에 서 있었고 칼빈은 교회 덕을 세우고 그 덕에 합당한 기준을 삼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배 방식이라도 이 기준에 맞으면 허용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이러한 칼빈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철저한 성경의 가르침을 원했다고 한다.²³

물론 성찬 횡수가 줄어든 것에는 사회적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인 숫자가 불어나면 성찬을 거행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성찬을 거행할 집례자가 부족할 경우 역시 성찬을 자주 거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성찬 집행에 있어서 목사들에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당한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필그림(Pilgrim)들은 1629년에 안수 받은 목사가 오기까지 성찬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⁴ 또한 호튼 데이비스는 지적하기를 청교도의 성례 신학의 약점 중 하나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철저한 이분법이었다고 한다. 즉 물질적인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면 성례를 단지 교육적인 표지로만 간주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⁵ 이러한 이분법이 개입되면 썬빙글리의 기념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찬이 어떤 초자연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찬예식에 있어서 철저히 인위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반드시 반-성례전적 입장을 취하고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가 어떤 마법을 지닌 것으로 믿었던 청교도들이나 개혁주

²² Bryan D. Spinks, *From the Lord and "The Best Reformed Churches": A Study of the Eucharistic Liturgy in the English Puritans and Separatist Traditions, 1550-1633* (C.L.V. Edizioni Liturgiche, 1984), 22.

²³ White, *Protestant Worship*, 118.

²⁴ White, *Protestant Worship*, 121.

²⁵ 호튼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김석한 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05.

의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성찬 자체’(sign)가 아니라 ‘성찬이 의미하는 바’(things signified) 그 실체(reality)가 신비적이고 반지성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다. 사실 성찬의 방식이나 형태는²⁶ 부수적인 의미를 지닌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 방식이나 형태가 싫다고 성찬 횡수까지 줄이면서 성찬을 단순히 기념적인 예식으로 돌리는 것은 역으로 합리주의라는 인위적 요소가 개입되어 성찬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위험성을 담고 있다.²⁷ 성찬의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초자연적인 은혜가 물리적인 요소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합리주의적 판단과 지나치게 설교의 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반한 것이라 하겠다.

파이퍼(Phifer)는 주장하기를 “사실 [청교도의 성찬에 있어서] 쾰링글리의 영향은 칼빈보다 더 컸다. 어떤 장식이나 상징을 거부하고 칼빈의 주장보다 더 극단적인 쾰링글리의 합리주의와 주관주의는 청교도들에 나타난 특성이다”라고 말한다.²⁸ 파이퍼의 주장은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칼빈의 신학보다는 쾰링글리의 신학을 답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찬에 관한 입장은 결과적으로 쾰링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칼빈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강조하고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관한 칼빈의 입장은 청교도들과는 달랐다. 비록 청교도들이 성찬 신학에 있어서는 칼빈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해도 성찬의 효력과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는 서로 달랐다고 하겠다. 즉 성찬을 말씀(설교)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칼빈에게는 성찬이 생략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었지만 청

²⁶ 예를 들어, 떡과 잔을 나누는 방법, 집례자의 집례 방식, 집례자의 예복, 떡과 포도주의 재료, 기도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²⁷ 데이비스는 청교도들의 예배당의 성찬상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찬의 빈번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한다. 이것은 기념설로 가장 잘 묘사되는데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재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293.

²⁸ Kenneth G. Phifer, *A Protestant Case for Liturgical Renewal*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65), 82.

교도들에게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충분했다.

성찬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방편으로 보았던 칼빈과는 달리 성찬을 단지 표지(badge)와 표시(sign)로 본 남장로교 신학자인 다브니(Dabney)는 칼빈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신비적(mythical)이며 반이성적(irrational)이라고 일축했다.²⁹ 그러나 다브니의 합리주의적 입장이 반이성적인 칼빈의 입장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칼빈이 성찬 예식 자체나 성찬의 재료들에 어떤 신비적 요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 다브니의 비판은 옳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칼빈이 표시(sign) 자체가 아니라 그 표시가 의미하는 실체에 어떤 신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의 입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성찬 재료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은 어떤 공간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³⁰ 성찬의 표시가 의미하는 실체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실체 자체는 신비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찬의 효력에 관해 칼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초점을 표시(sign)가 의미하는 실체가 아니라 표시 자체에 둔다면 성찬의 효력을 말씀의 효력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꺼릴 것이며 결국 예배에 있어서 성찬의 중요성이 약해질 것이다. 또한 신자들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성찬과 같은 예식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평상시 믿음을 통하여서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찬은 단순히 신자들이 평상시에 갖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³¹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²⁹ R. L. Dabney,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5), 811-12. 다브니는 성찬예식이 형식주의(formalism)에 빠질까 봐 우려했던 것이다(727).

³⁰ John Calvin, *Corpus Reformatorum*, 37:48, quoted by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206.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11항과 21항에서 성찬의 표징(sign)과 실체(reality)의 관계 그리고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하신 약속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찬은 말씀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모토이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모토가 오직 설교만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에 충실하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적 혹은 합리적 이해와 수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배에 있어서 성찬보다는 설교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어쩌면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지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만을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성찬이나 세례 같은 물리적인 표시가 언어로 구성된 말씀보다 덜 지적이고 덜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더욱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성찬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다. 충분히 가시적(visible)이고 물리적(physical)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축복이 전달될 수 있다.

언어만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주어진 목적과 맞지 않다. 비록 성경 자체가 언어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전달 방식이 언어로 국한 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예식, 성막, 성전, 길갈에 세운 12개 돌은³² 차치하더

31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찰스 핫지(Charles Hodge)와 존 네빈(John W. Nevin) 사이에 유명한 논쟁이 19세기 초에 있었다. 네빈은 당시 장로교회가 전통적 칼빈주의에서부터 멀어졌음을 한탄하면서 그의 책, *Mythical Presence*에서 성찬을 통하여 영적 그리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네빈 역시 칼빈주의자로 칼빈과 전통적 개혁주의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핫지는 네빈이 개혁주의에서 벗어나 너무 신비적 차원에서 성찬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요나단 보노모는 네빈과 핫지 둘 다 성찬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찾았지만 네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찬을 연결하면서 너무 실재론적(realist) 인간론, 즉 인간이 실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핫지는 유명론적(nominalist) 입장과 상식철학(Common Sense Philosophy) 입장에서 성찬과 그것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너무 이분화시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Jonathan G. Bonomo, *Incarnation and Sacrament: The Eucharistic Controversy between Charles Hodge and John Williamson Nevin* (Eugene, Or.: Wipe and Stock Publishers, 2010), 119-24. 또한 보노모는 두 사람의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칼빈이 균형 잡힌 성찬 신학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로마 천주교나 영국 성공회처럼 성찬의 효력을 교회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론자들처럼 성찬을 어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실재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2 수 4:20-22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 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

라도 신약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친히 성찬을 거행하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사랑을 전달했고 물세례를 행했다. 성경은 물리적인 것을 도구로 영적인 것을 운반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신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두려워하여 물리적인 것을 경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물질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세계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고 성자 하나님이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물리적 땅에 오심으로 더 영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으신 것도 그가 세상과 상관없는 영의 세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세상과의 교제와 소통하심의 가능성을 보여 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언어도 물리적인 것이다.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매 순간 전달하고 있다. 언어 자체가 물리적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두 번씩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낭독해서야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성찬이 물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두 번씩 거행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물리적 자체가 영적화(spiritualize) 되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성찬을 자주 거행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성찬 받기 위한 엄한 기준 때문이었다.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한 자들만 받도록 했다. 이 합당한 자격을 위해서는 결국 성찬 참여를 위한 준비가 철저하며 엄했어야 했다. 홀리필드는 지적하기를 성찬 참여를 위한 엄한 기준과 마음의 준비로 인해 성찬 받기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어떤 청교도들에게는 성찬 자체보다 더 중요했다고 한다.³³ 17세기 초 뉴잉글

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한다. 여기 돌이라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요소가 합리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을 증거하고 있다.

³³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55. 죠나단 미첼(Jonathan Mitchell)은 2개월마다 갖는 성

랜드 청교도 존 화이트(John White)는 열 가지 영적 서약이라는 교회 언약서를 제정하여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 전날 저녁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 열 가지 서약서를 읽어주었으며 그들로 동의한 후 성찬에 참여토록 하였다.³⁴ 존 호위(John Howe)는 백스터(Baxter)에게 편지하기를 “장로교 열성분자들이 제시한 수찬 자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찬자들에게서 확실히 나타나는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관한 신뢰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³⁵ 이러한 내적 회심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때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며 증거의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기준이 분분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논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⁶ 이러한 주관적 요소들은 성찬의 객관적 효력과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하겠다. 호튼은 지적하기를 성찬 받는 자의 내적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해 성찬의 초점이 성찬 의식의 객관성과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성찬이 허용된 소수의 회중에 의해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의 반발이 생겨났다고 한다.³⁷

매사추세츠의 판사였고 매우 신실했던 사무엘 스월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냥 달아나 버리면 다음 시간에 성찬식에 부적격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떠나고

찬식 전날 하루 종일을 금식하며 준비했다고 전하고 있다. *The Diary of Michael Wigglesworth*, ed., Edmund S. Morgan (New York: Harper & Row, 1946), 76.

³⁴ 윤종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의 상관관계 연구”, 『성경과 신학』 56 (2010): 258.

³⁵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131.

³⁶ 세례에 관한 진실성과 확실성에 관한 논쟁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의 “중도언약”(Half-way Covenant)을 들 수 있다. 스토다드는 성찬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펴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는 목사나 지역 회중들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므로 위선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무오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은혜의 경험을 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그들을 성찬식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성찬 자체가 감동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므로 ‘회심의 규례’로 바꿈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135.

³⁷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206. 데이비스는 또한 지적하기를 “가시적 성도라고 주장할 때 자신이 위선자인가 아닌지, 그리고 만일 자신이 위선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야기되기도 했다.”고 한다.

싶었지만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때보다 더 큰 불신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 없이 성례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으로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웠다.”³⁸

이렇게 주관적 신앙 성찰을 위한 엄한 기준은 성찬 참여자에게 큰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기쁨 마음으로 거행하기 보다는 두려움 마음으로 거행하고 참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집례자 목사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수찬 기준들을 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종류의 이유들 때문에 신자들은 성찬을 자주 거행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성화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엄한 수찬의 기준들은 완벽주의(perfectionism)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개인적 주관적 죄성을 완전히 없애야 수찬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완전한 주관적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유로 해서 더욱이 성찬에 적극 참여해야 했었다. 청교도들은 회심의 증거 혹은 윤리적 도덕적 상태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 완벽주의가 성찬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한편 이러한 청교도들의 엄한 기준은 사실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만찬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확신 가운데 그러한 철저하고 엄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식이 역설적으로 성찬의 횡수를 줄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찬을 멀리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완벽주의적 현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솔로몬 스토타드처럼 성찬을 일종의 믿음이 약한 자 혹은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회개예식’(converting sacrament)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생겼다. 예를 들어, 홀리필드에 따르면 윌리엄 프린(William Prynne)은 성만찬을 회개예식으로 정의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심지어 불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³⁸ Samuel Sewal, *The Diary of Samuel Sewal*, ed., M. Halsey Thoma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I. 40.

주장했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성찬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면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5-26). 행20:7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성찬 자체를 회개예식으로 보는 것은 로마 천주교의 화체설과 같이 성찬 재료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믿음에 따른 성찬의 효력은 그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성찬을 반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식으로 이분화할 때 상대적으로 성찬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설교가 지나치게 예배의 중심이 되고 또한 성찬을 필수적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정도의 그런 예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찬을 받는 기준을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세운다면 많은 사람들, 특히 내성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청교도들은 칼빈이 신학을 따르면서 실제적으로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4. 한국장로교회의 성찬 횟수에 관한 고찰

김영재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에서 온 선교사들이 1893년 장로교 공의회를 형성하여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장로교회들이 다 청교도의 전통에 속하며 선교사들은 그들의 후예이다”라고 말한다.⁴⁰ 또한 박형

³⁹ Holifield, *The Covenant Sealed*, 111

룡 박사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그것이다. 그것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 신학에 영미의 청교도적 특징을 가미한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다”라고 말한다.⁴¹ 그렇다면 한국(장로)교회의 예배 형식도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를 시작한 선교사들은 아직 자유주의(Liberalism)에 물들지 않은 교단의 파송 선교사들이었기에 이들 모두 칼빈주의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⁴² 오덕교 교수는 초대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단순한 예배였다는 것은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피력한다.⁴³

한국장로교회가 성찬 예식을 처음 선교사들로부터 소개 받았을 때 위에서 서술한대로 역사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형성된 성찬의 배경과 과정이 함께 소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재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회 초창기 당시에는 이렇다 할 예배 의식서도 없고 전해 내려온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들만 포함시키고 목사의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⁴⁴ 한국장로교회가 전반적으로

40 김영재, “청교도 운동과 한국 장로교회”, http://rpress.or.kr/xe/planning_special/4805 (2012년 4월 6일). 홍치모 교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은 청교도적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학사상은 칼빈주의 근본주의 사상으로 채색되어 있었다”라고 피력한다. “한국초기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신학지남』 통권 제20호 (1984년 가을호): 129. 또한 신복운 교수는 한국장로교회 신학 전통을 “유럽의 칼빈주의와 영미의 청교도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구현된 신학”으로 규정한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학정론』 10/1 (1992. 3): 115.

41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통권 제174호 (1976년 가을호): 8-10.

42 김길성 교수는 한국에 장로교회를 세운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에 충실한 보수적인 선교사들로 4개 선교부 소속이었다고 한다. 4개 선교부는 1889년 미국 북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 선교부 사이에 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 1893년에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공의회가 조직되고, 1901년에는 선교사와 한국인대표가 참여한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가 조직되어 미국 북장로교회(PCUSA), 남장로교회(PCUS),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이 참여한 4개 선교부이다. 김길성, “한국장로교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학술지』 (2012년 봄): 11.

43 오덕교, “교회사에 나타난 예배”, 『성경과 신학』 6 (1988): 113.

44 김영재 교수는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함을 표방하지만 예배에 대한 일정한 형식이 없다. 아마 그것은 예배의 자유로운 형식을 선호하는 미국 교회의 선교사들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사경 집회식의 예배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교회가 복잡한 의식을 갖추지 않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역시 그렇게 했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독교의 재인식』 284. 또한 김영재 교수는 이어서 “많은 청교도들이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기도드리는 것을 좋아했으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예배 의식서를 가져온 국가교회나 국민교회를 배경

신학에 있어서는 칼빈주의의 입장을 따랐으면서도 성찬에 관해서는 선교사들이 소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청교도들의 성찬 거행 방식을 한국교회에 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처했던 상황과 한국 교회 상황은 다르다. 청교도들은 성경적 예배 개혁을 위해 형식주의와 인위적인 예식주의를 배격하는 차원에서 성찬을 거행했지만 한국장로교회는 이러한 배경 없이 단순히 목사의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형성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성찬을 자주 거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장로교회는 성찬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고 영적이고 실재적인 은혜 방편으로 설교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된 설교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목사는 가운을 입고 심지어 강대상을 성스럽게 구분하고 있다. 김영재 교수는 “청교도 운동이 외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예배에서 사제복을 입기를 거부함으로써 엘리자베스 여왕의 칙령을 어긴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옷 입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청교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개혁의지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 의식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교도들은 한사코 반대를 했던 것이다”라고 말한다.⁴⁵ 오덕교 교수 역시 청교도 운동을 영국교회에 아직 남아 있었던 로마 천주교의 예배 의식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으로 정의한다.⁴⁶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는 개혁의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성찬을 집행하는 행위는 청교도들

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일을 향유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전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는 무관한 채로 ‘자유롭게’ 드린다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방향이 종잡을 수 없도록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초기의 청교도들과 같이 예전은 가지면서도 거기에 얽매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면 되는 줄로 안다.”라고 피력한다. 『한국 기독교의 재인식』, 285.

45 김영재, “청교도 운동과 한국 장로교회”, http://rpress.or.kr/xe/planning_special/4805 (2012년 4월 6일).

46 오덕교, “교회사에 나타난 예배”, 『성경과 신학』 6 (1988): 113-14.

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혐오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성찬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구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형식주의와 인위적인 예식주의를 멀리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설교 중심의 예배를 전수받은 차원에서 성찬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주의와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청교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예식주의와 사제주의의 위험성을 모른 채 성찬을 자주 행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장로교회가 성찬을 자주 행하지 못한 것은 청교도들처럼 반-예식주의 및 반-사제주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설교 중심의 예배 전통 때문이라면 오히려 한국교회에서는 성찬을 말씀과 같은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며 더 쉽게 칼빈의 성찬 신학을 답습할 여지가 있었다.

한편 한국장로교회 역시 청교도들처럼 성찬을 받기 위한 철저한 윤리적 기준을 세웠다. 그만큼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처음의 성찬예식은 1887년 크리스마스 날 언더우드 사택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성경이 번역된 지 6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⁴⁷ 이것은 처음 선교사들은 성찬을 매우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찬을 자주 거행해야 할 예식이나 예배 시 함께 거행해야 할 예식으로는 보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최초 예식서는 1922년 선교사들 중심으로 작성된 『예배모범』이며 한국인 목사들로 작성된 최초 예식서는 1924년경에 발간된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예식서』이다.⁴⁸ 성찬 횟수에 관해서 『예배모범』은 “성찬은 간혹(間或) 베푸는 것이 가하나”라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예식서』 역시 “성찬은 간혹 베푸는 것이 가하나 몇 번을 거행하던지 각기 당회가 작성하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대로 정할지니라”고 기록한다.⁴⁹ 성찬을 ‘간혹’ 거행하는 것으로 『예배모범』에 기록했다는

47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신개정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75-76.

48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104-7.

49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121.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콕안런(C. A. Clark)의 목회학 저서인 『목사지법』에서는 성찬을 단지 기념적(memorial) 예식이 아니라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찬 횟수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하되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⁵⁰ 한편 흥미로운 것은 콕안런은 성찬을 다음과 같이 유월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그 유월절기는 큰 화목예물절기니 이 절기는 신약시대로 넘어오고 예수께서 그 절기를 변하여 신자의 성찬잔치로 삼으셨으나 그 뜻은 여전한지라.”⁵¹ 또한 대부분의 한국교회 초기 문헌들은 성찬을 유월절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⁵² 이렇듯이 성찬을 유월절과 연결시켜 이해할 경우 성찬을 연례행사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김영재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해 왔으므로 개혁주의 교회의 일반적인 관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한국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이 지역교회를 1년에 2번씩 순회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이 생겼다는 설명도 있다”라고 말한다.⁵³ 물론 이렇게 초창기 한국장로교회에서 성찬을 자주 거행하지 못한 것은 성찬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집례할 수 있는 목사들의 숫자가 부족했거나 설교 중심의 예배를 추구했기 때문이요 성찬을 필요 이상으로 거룩하게 봄으로 그에 따른 수찬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예식서』제2항 “성찬에 대한 조례”에는 수찬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교회를 각오(覺悟)치 못하는 자와 교회를 수치케 하는 자와 훼방(毀謗)할 기회를 짓는 자는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느니라.”⁵⁴ 이러한 규정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에게 적

(합동) 『예배모범』에는 “간혹”이라는 단어 대신 “종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종종’은 ‘간혹’이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50 콕안런 『목사지법』(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9), 342,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261에서 재인용

51 콕안런 『목사지법』, 325-28,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263에서 재인용.

52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264.

53 김영재, 『한국기독교의 재인식』, 316.

용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겠지만 교회를 각오치 못하는 자, 즉 교회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수찬을 금했을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물론 한국장로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혹은 입교를 받은 자들로 한정해 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배모범에서는 수찬에 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 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중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⁵⁴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수찬의 기준은 이 전에 비해 더 철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철저하고 엄한 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장로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이면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다. 역설적으로 성찬을 위한 윤리적 기준은 무색하게 되었고 성찬은 형식적 예식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로 성찬 횟수도 줄어들었고 성찬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 행사가 되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말았다.

⁵⁴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117. 『예배모범』 개정판(1934)에서는 “교회를 각오(覺悟)치 못하는 자”를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로 수정했다.

⁵⁵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배모범』, http://www.gapck.org/sub_06/sub08_11.asp (2012년 4월 7일).

한국장로교회도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청교도들처럼 설교 중심의 예배와 철저한 윤리적 기준 때문에 성찬을 자주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한국장로교회 역시 잘못된 성화론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칼빈의 성화론 차원에서 성찬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믿음의 ‘이중적 은혜’(duplex beneficium)이다. 칼빈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이중적 은혜를 설명한다.⁵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은 성찬을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지탱시키시는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맹세로써 확신시키시는 예식으로 믿었다.⁵⁷ 이 성찬은 ‘이중적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찬은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신자를 두 종류로 나누는 예식도 아니요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회개예식도 아니다. 성찬의 효력은 받는 사람의 상태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주권적인 삼위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다. 인간 쪽에서 어떤 기준을 내세워 성찬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다른 인간적 기준에 따라 성찬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7-29절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찬 받기 주저하도록 만드는 말씀이다.

56 칼빈, 『기독교강요』, 3. 11. 1.

57 칼빈, 『기독교강요』, 4. 17. 1.

이 구절은 청교도들의 엄격한 신앙적 기준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슈라이너와 크로포드는 합당치 않은 자라는 의미는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미라고 한다. 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의 다스림과 사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공동체 차원의 합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으로 평가해야 했다고 말한다.⁵⁸

고전서 11:27-29절의 말씀은 어떤 엄격한 주관적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개인적 신앙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자격 미달의 성도들이 많았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개인적 신앙 상태에 따라 성찬의 참여의 여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전11:17부터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씀한다. 모임, 즉 공동체에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모습이 성찬 받기에 합당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8-19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한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말씀한다.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자가 성찬에 합당치 못한 자이다. 분당과 파당은 언약 공동체이며 주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인 것이다. 또 고전 11:20-29에 성찬에 앞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된 일을 지적을 하시고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합당치 못한 자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 33-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다. 여기서는 성찬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판단 받는 모

⁵⁸ Thomas R. Schreiner & Matthew R. Crawford, *The Lord's Supper: Remembering and Proclaiming Christ Until He Comes*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2010), 326-30.

임이 되게 한 자를 의미한다.

아치발드 로버트슨과 알프레드 플루머는 초대교회의 성찬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여성 지위, 계급 차별, 노예 제도, 결인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고린도교인의] 한 계에서 그들은 로마와 유럽을 당황케 한 사회적 문제들을 풀었다. (중략) 그 혁명의 비밀은 바로 인종과 계급의 이기심이 주의 성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의 새로운 기초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⁵⁹ 바울은 선교사로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우 민감하였다. 고전14장에 방언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상기시키며 경계하였다. 그리고 14:25에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말씀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성찬에 있어서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가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합당치 않은 자들을 경계한 것이다.

E. P. 굴두(Gould)는 고전 11:27에 기록된 ‘성찬에 합당치 않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합당치 않음은 성찬을 대하는 사람 개인의 합당치 않음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태도들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 마음에 있는 생각은 20-2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의 합당치 않은 예식 태도에 관한 것이다.”⁶⁰ 20-22절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기적인 사람들을 견책하는 말씀이다. 또한 클레런스 크레이그는 공동체의 빈궁한 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성찬을 더럽히는 이기심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주님께 대항하는 범죄이다. 그 이유는 그런 행위는 공동체적 교제와 삶과 교회의 전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⁶¹

⁵⁹ Archibald Robertson &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England: T. & T. Clark, 1978), 238.

⁶⁰ E. P. Gould, *An America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Valley Forge, PA.: The Judson Press, 1887), 100.

결론적으로 수찬에 대한 지나친 개인적 윤리적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합당치 못한 자를 배제했다기보다는 성찬에 임함에 있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개인적 윤리적 문제가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찬 기준에 있어서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개인 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5. 결 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장로교회는 성찬신학에 있어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쾰빙글리의 기념설을 따르는 것처럼 마치 과거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을 대하고 있다. 성찬을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고난 주간과 같은 절기에 맞춰 일 년에 네 번 정도로 거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칼빈의 성찬 신학을 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주 거행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와 성찬의 바람직하지 못한 분리와 지나친 수찬의 윤리적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주요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파괴되고 변질되는 이유를 인본주의 및 세속주의에서 찾고는 한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즉 목사 개인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기복신앙과 같은 세속적 관점의 설교는 한국 교회를 인본주의 및 세속주의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하다. 예배에 있어서 지나치게 설교 의존도가 높고 설교의 초점을 성도들의 흥미를 돋우는데 맞추다 보니까 예배가

⁶¹ Clarence Tucker Craig, *The Interpreter's Bibl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NY.: Abingdon & Cokesbury Press, 1953), 141.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약속보다는 목사 중심의 이야기 전달과 흥미 돋우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목사의 주관적 견해와 인본주의적 요소를 담은 설교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전달되고 있다. 청교도들은 사제 중심의 성찬이 주관주의와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엄격한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결국 실제적으로 성찬 횟수가 줄어든 결과를 빚었다. 반면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성찬 횟수를 줄여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위치가 청교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주관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고 또 자주 거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성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과 교제(communion)가 가능해지고 신자 개인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고 하면 성찬은 반드시 자주 거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찬을 거행함에 따라 교인들의 목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예배가 목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 중심의 예배로 성부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찬은 목사들의 설교 사역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예식이 성찬 외에는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매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가능한 한 자주 성찬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전해 받는 것은 오직 언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거행함으로 설교 이상의 효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찬은 언어로 소통되는 설교보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한편 성찬을 자주 행하기에는 교인 수가 너무 많아진 교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도의 열매로서 기뻐해야 하지만 그래서 성찬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성찬을 포함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교회를 세운다거나 분립개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키드 마디슨(Keith A. Mathison)은 칼빈의 성례신학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세례식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초기와 연관된다고 하면 성찬식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연합과 연관된다. 성찬에서 신자는 양육 받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더 강해지고 증가된다. 성찬은 신자의 지속적 성화와 은혜 안에서의 성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성찬에 정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양육과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⁶² 한국장로교회가 이러한 성찬의 유익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주 성찬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고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으며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⁶² Keith A. Mathison, *Given for You: Reclaiming Calvin'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2002), 276.

참고문헌

- Bonomo, Jonathan G. *Incarnation and Sacrament: The Eucharistic Controversy between Charles Hodge and John Williamson Nevin*. Eugene, Or.: Wipe and Stock Publishers, 2010.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Craig, Clarence Tucker. *The Interpreter's Bibl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Abingdon & Cokesbury Press, 1953.
- Dabney, R. L.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5.
- Davies, Horton.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Westminster: Dacre Press, 1948.
- _____. 『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Goodwin, Thomas. *The Work of Thomas Goodwin*. Vol. xi: *The Constitution, Right Order, and Government of the Churches of Christ*. Edinburgh: James Nichol, 1865.
- Gould, E. P. *An America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Corinthians*. Valley Forge, Pa.: The Judson Press, 1887.
- Holifield, E. Brook. *The Covenant Sealed: The Development of Puritan Sacramental Theology in Old and New England, 1570-17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4.
- Howard, Jr., Donald W. *Renewal Worship: Caring for Peopl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 Mathison, Keith A. *Given for You: Reclaiming Calvin'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2002.

- Maxwell, William 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Its Developments and Form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Mitchell, Jonathan. *The Diary of Michael Wigglesworth*. Edited by Edmund S. Morgan. New York: Harper & Row, 1946.
- Phifer, Kenneth G. *A Protestant Case for Liturgical Renewa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 Robertson, Archibald &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 & T. Clark, 1978.
- Schreiner, Thomas R. & Matthew R. Crawford. *The Lord's Supper: Remembering and Proclaiming Christ Until He Co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10.
- Sewal, Samuel. *The Diary of Samuel Sewal*. Edited by M. Halsey Thoma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 Spinks, Bryan D. *From the Lord and "The Best Reformed Churches": A Study of the Eucharistic Liturgy in the English Puritans and Separatist Traditions, 1550-1633*. C.L.V. Edizioni Liturgiche, 1984.
- Von Rohr, John.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 White, James F. *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 김길성. "한국장로교회 신학 100년의 회고와 전망".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학술지」 (2012년 봄): 11-26.
- 김영재. "청교도 운동과 한국 장로교회". http://rpress.or.kr/xe/planning_special/4805 (2012년 4월 6일).

-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에 나타난 성찬신학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예배모범』. http://www.gapck.org/sub_06/sub08_11.asp (2012년 4월 7일).
-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신개정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통권 제174호 (1976년 가을호): 8-10.
- 신복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학정론』 10/1 (1992. 3): 112-127.
- 오덕교. “교회사에 나타난 예배”. 『성경과 신학』 6 (1988): 113-30.
- 윤종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의 상관관계 연구”. 『성경과 신학』 56 (2010): 243-81.
- 홍치모. “한국초기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신학지남』 통권 제20호 (1984년 가을호): 126-40.

Abstract

A Theological Study about the Frequency of the Lord's Supper in Puritans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Jung, Sung Won

The Lord's Supper is the sacrament that Jesus himself ordained for his covenant people to continue to keep until he returns. Yet, unfortunately, when we look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many things about it go contrary to what Christ meant. The sacrament turned out to be a formal ceremony, and its original meaning faded away. The Lord's Supper is no other than the means of grace. It is also a seal and sign of grace bestowed to his covenant people. The sacrament itself doesn't have a magical power or a supernatural grace. It points to the crucifixion of Christ, and signifies his grace. John Calvin took this fact very seriously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Lord's Supper. He also emphasized th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grace of Jesus Christ continue to be bestowed through the sacrament, and that the covenant people ought to continuously abide by it in the worship service as often as possible. But, unfortunately, the Puritans, who attempted to reform the worship of the Anglican churches, 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who took over from the Puritans their faith and theology in their beginning failed to observe the sacrament as often as they worshipped, although both followed the theology Calvin in general. Though the backgrounds of both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re

were two main reasons for not keeping it as often as possible, which are the worship service centered on sermon and the strict ethical standard in receiving the Lord's Supper. It is true that the sermon is pivotal in worship, yet, the Lord's Supper as the means of grace is on par with it. And the strict ethical standard for receiving the Supper is too subjective to comport with the Calvinistic concept of sanctification. Moreover,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unbalanced situation in which the worships in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center around the sermons of the individual pastors is to recover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and frequently practice it as Calvin emphasized.

Key-Words: the Lord's Supper, the Puritans, formalism, covenant, ethical standard, the means of grace